



즉시 배포용: 2023년 7월 1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노동 조사 중 서류 미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 조치 시행 발표

뉴욕주 노동부, 서류 미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Biden 행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절차 수립

파렴치한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변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가 올해 초 Biden 행정부가 시행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여 노동 분쟁 중 서류 미비 이민 노동자를 보복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YSDOL은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의 부처 간 파트너십을 통해 현재 서류 미비 근로자 및 그 옹호자들과 협력하여 기소 및 추방 가능성으로부터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NYSDOL 주 조사에 연루된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iden 행정부 하에서 주 정부 기관을 포함하도록 확대된 이 검찰 재량권 절차는 종종 추방 또는 기타 형태의 보복 위협을 받는 서류 미비 근로자가 부도덕한 고용주를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미 국토안보부와 중요한 파트너십은 노동 조사의 무결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뉴욕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미국을 선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모든 근로자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NYSDOL의 직장 내 노동 조사에 관여하는 서류 미비 근로자는 DHS의 검찰 재량권을 지지하는 이해관계 진술(Statement of Interest)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그들을 대신하여 NYSDOL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부서(Worker Protection Unit)는 요청서를 평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국토 안보부에 연기 조치에 대한 동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HS는 각 신청서를 검토하며, 승인되면 근로자에게 유예 조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예 조치는 해당 근로자가 2년 동안 퇴거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용주로부터 차후 지급을 받을 경우 더 오래 되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절차가 시작된 이후 32건의 이해관계 진술서를 승인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제해주었습니다.

DHS가 이해관계 진술서를 접수하면 조사의 영향을 받는 작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기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 재량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근로자가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 훨씬 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가 뉴욕주 전역의 모든 직장에서 권리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근로자가 노동 위반의 피해자이거나 이러한 피해 사실을 목격한 경우 저희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뉴욕주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직장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 미비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Jerry Nad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착취와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노동 조사 과정에서 뉴욕의 서류 미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Hochul 주지사의 오늘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NYS DOL과 DHS의 연방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파렴치한 고용 관행을 없앨 것입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착취적인 고용주는 추방 위협을 통해 서류 미비 근로자가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장 환경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약화시킵니다. 어떤 노동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강요받아서 안 됩니다. 이민자 근로자를 보호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기준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가 지지한 이러한 연방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Legal Aid Society의 Richard Blum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이해관계 진술서 발급은 임금 절도 및 기타 악의적인 노동 관행에 수반되는 위협과 만연한 공포 분위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Brooklyn Defender Services의 Equal Justice Works 펠로우인 Callen Lo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렴치한 고용주들은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민 노동자들로부터

최저 이하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너무 오랫동안 이익을 착취해 왔습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이해관계 진술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뢰인이 이민에 기반한 고용주의 보복에 덜 취약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역의 서류 미비 거주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파렴치한 고용주가 주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퇴거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일련의 노력 중 가장 최근에 취한 조치입니다. 지난 5월,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망명 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Hochul 주지사는 신규 미국인들이 자신의 기술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뉴욕주 고숙련 이민자를 위한 전문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0월, 주지사는 그녀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이민 신분 신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NYSDOL의 노동 기준부(Division of Labor Standards)는 서류 미비 또는 임금 체불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 기준부\(Division of Labor Standards\)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NYSDOL의 이민 정책 및 업무부(Division of Immigrant Policies and Affairs, DIPA)는 뉴욕에서 일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뉴욕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해당 부서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IPA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